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PROVINCIAL ECONOMIC TRENDS IN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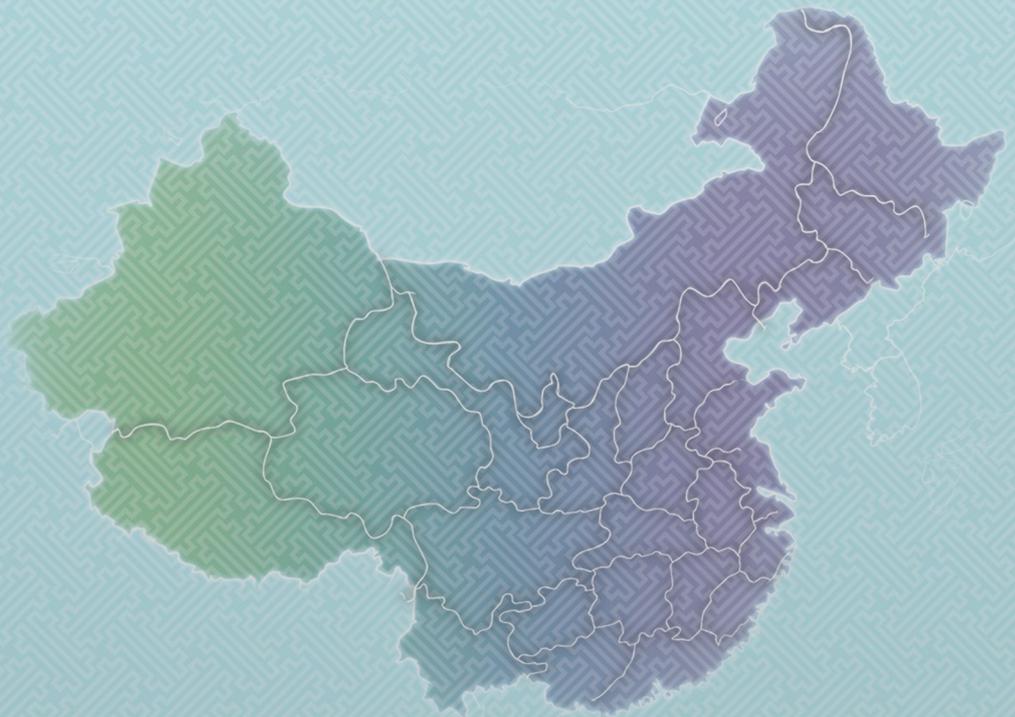
2012년 8월 29일 | Vol. 3 No. 14

ISSN 2093-3282

한·중 경제협력 20년 회고와 전망: 화동지역

노수연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syno@kiep.go.kr, Tel: 3460-1284)

이상희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연구원(shlee2@kiep.go.kr, Tel: 3460-1287)



차 례 ●●●

1. 화동지역 개황
2. 한·화동지역 무역 현황
3. 한·화동지역 투자 현황
4. 한·화동지역 정부간 교류 현황
5. 평가와 전망

주요 내용

- ▣ 한국과 중국 화동(華東)지역 간 무역·투자 교류는 2000년대 들어서 급증하였으며, 현재 화동지역은 한국의 주요 무역·투자 대상지역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음.

 - 화동지역은 중국 동부 연해지역 창장(長江) 중·하류에 위치하는 지역을 지칭하며, 상하이(上海)시, 장쑤(江蘇)성, 저장(浙江)성으로 구성됨.
 - 한국과 화동지역 간 교류가 한·중 교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 무역은 1998년 18.4%에서 2011년 39.2%로 증가했고 △ 투자는 1992년 8.2%에서 2011년 30.9%로 증가했음.
 - 한국의 대(對)화동지역 수출입 최대 품목은 전기전자이며, 최대 투자업종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차지해 한국의 대중 수출입품목 및 투자업종 분포와 유사함.

- ▣ 화동지역은 중국 내외의 환경악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상당 기간 중국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전망이다.

 - 2008년부터 화동지역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산업구조를 신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 속도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 창장삼각주도시군 형성 △ 상하이시의 4대 국제 허브 건설 △ 장쑤성 연해지역 개발 △ 저장성 3대 발전계획 등 국가급 지역발전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임.

- ▣ 화동지역의 환경변화에 맞춰 무역·투자 방향을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음.

 -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해 교역 대상 및 상품 다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화동지역의 서비스업 분야 진출이 확대되고, 화동지역 소재 중국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1. 화동지역 개황

- 화동(華東)지역은 1978년 개혁개방과 1992년 푸둥신구(浦東新區) 개발을 계기로 빠른 경제성장을 유지해 왔으며, 현재 중국에서 경제규모와 소득수준 면에서 가장 발달한 지역 중 하나임.
- 화동지역은 중국 동부 연해지역 창장(長江) 중 하류에 위치하는 지역을 지칭하며, 상하이(上海)시, 장쑤(江蘇)성, 저장(浙江)성으로 구성됨(그림 1 참고).¹⁾

그림 1. 화동지역의 위치와 구성



자료: <http://www.yiwenkeji.com/W.asp?ID=739>(검색일: 2012. 8. 13).

- 화동지역의 면적은 중국 전체의 1.1%, 인구는 전체의 11.6%에 불과하나,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한 지역으로 중국 내에서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위상도 빠르게 상승함(표 1 참고).
- 화동지역이 중국 전체의 국내총생산, 수출입,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에는 순서대로 18.6%, 16.4%, 15.4%였으나, 2011년에는 21.2%, 35.3%, 48.6% 이상으로 증가함.
- 또한 세 지역의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과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은 중국 전체 평균인 2만 1,810 위안과 6,977위안보다 월등히 높아 소비 잠재력이 큰 지역임.

1) 화동지역의 지리적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2010년 발표된 ‘창장삼각주지역계획(长江三角洲地区区域规划)’에 입각해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으로 지역을 국한함.

표 1. 2011년 화동지역 3개 성·시의 경제 개황

항목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화동지역 계	
		%*		%*		%*		중국 내 비중(%)
면적(만 km ²)	0.63	-	10.3	-	10.18	-	21.11	1.1
인구(만 명)	2,324	0.21	7,898.5	0.37	5,463	0.31	15,685.5	11.6
지역내총생산 (GRDP, 십억 위안)	1,919.6	8.2	4,860.4	11	3,200	9	9,980	21.2
1인당 GRDP(위안)	82,560	12.6	61,649	16.6	58,665	7.1	63,625.6	-
소매 판매액(십억 위안)	677.7	12.3	1,584.2	17.5	1,193.6	17.4	3,455.5	19.1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위안)	36,230	13.8	26,341	14.8	30,971	13.2	31,180.7**	-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위안)	15,644	13.8	10,805	18.5	13,071	15.6	13,173.3**	-
고정자산투자액(억 위안)	5,067.09	0.3	26,299.4	21.5	14,290.1	24.8	45,656.6	15.1
수출입규모(억 달러)	4,374.36	18.6	5,397.6	15.9	3,094	22	12,865.96	35.3
수출규모(억 달러)	2,097.89	16	3,126.2	15.6	2,163.6	19.9	7,387.7	38.9
수입규모(억 달러)	2,276.47	21	2,271.4	16.3	930.4	27.3	5,478.3	31.4
FDI 실행액(억 달러)	126.01	13.3	321.3	12.8	116.6	6	563.9	48.6
산업구조(1차:2차:3차)	0.7:41.5:57.9	-	6.3:51.5:42.2	-	4.9:51.3:43.8	-	-	-

주: 1) * 전년대비 증가율임.

2) 화동지역 1인당 GRDP는 3개 성·시의 GRDP 합계를 인구 합계로 나누어서 산출함.

3) **는 2011년 기준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수가 발표되지 않아 3개 성·시의 수치를 산술평균한 값임.

자료: 중국 국가 통계국(<http://www.stats.gov.cn>); 상하이시 통계청(<http://www.stats-sh.gov.cn>); 장쑤성 통계청(<http://www.jssb.gov.cn>); 저장성 통계청(<http://tjj.zj.gov.cn>)(검색일: 2012. 8. 7).

■ 화동지역은 1차 산업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장쑤성과 저장성은 2차 산업 위주, 상하이시는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11년 중국 31개 성·시의 1·2·3차 산업비중 평균은 순서대로 10.1%, 46.8%, 43.1%임.
- 장쑤성과 저장성의 2차 산업은 중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장쑤성 공업 부가가치의 3/4, 저장성 공업 부가가치의 3/5을 중공업이 생산함.
- 상하이시의 3차 산업 비중은 1978년의 18.6%에서 2011년 57.9%로 급속하게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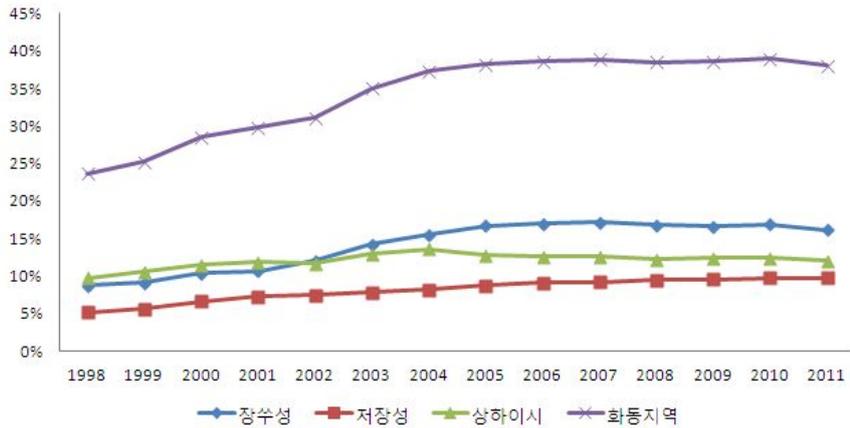
2. 한·화동지역 무역 현황

- 화동지역은 중국에서도 무역거래 규모가 큰 지역으로, 한국과도 무역거래가 많음.²⁾
- 화동지역의 무역총액이 중국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23.7%에 불과했으나 꾸준히 증가해 2002년 최초로 30%를 돌파했고, 2005년 이후부터는 33%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그림 2 참고).

2) 본고에서는 성(省)별 무역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1998년부터 2011년까지 무역 현황을 분석함.

- 성·시 단위에서는 상하이시가 2001년까지 최대 규모를 유지했으나, 2002년부터 장쑤성이 추월했음. 또한 2011년 화동지역 무역총액에서 장쑤성의 비중이 42.6%에 달할 만큼 화동지역 대외무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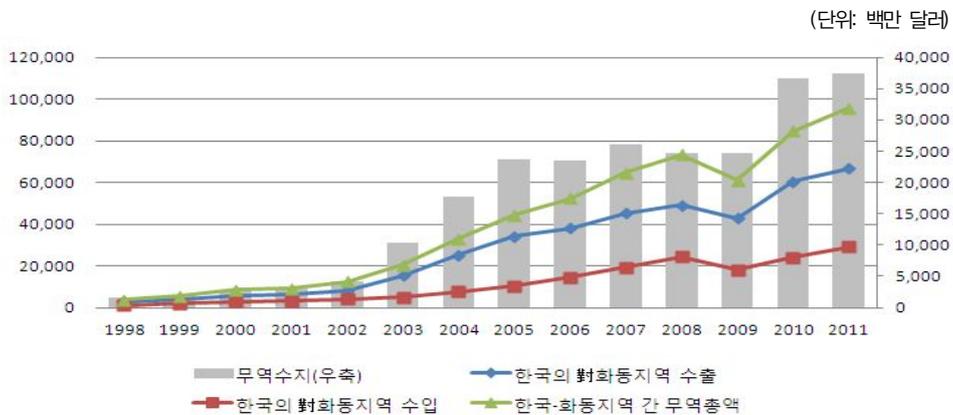
그림 2. 화동지역이 중국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검색일: 2012. 8. 15).

- 한국과 화동지역 간 무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된 2009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한국은 1998년 이래로 화동지역 3개 성·시의 무역 대상국 10위 안에 꾸준히 포함됨(그림 3 참고).
- 한· 화동지역 간 무역액은 1998년의 39억 714만 달러에서 2011년에는 958억 1,600만 달러로 24.5배 증가함.
- 특히 2003년부터 무역액이 급증하면서 한국의 대화동지역 무역흑자가 최초로 100억 달러를 넘어섬. 2011년에는 무역흑자가 약 375억 달러에 달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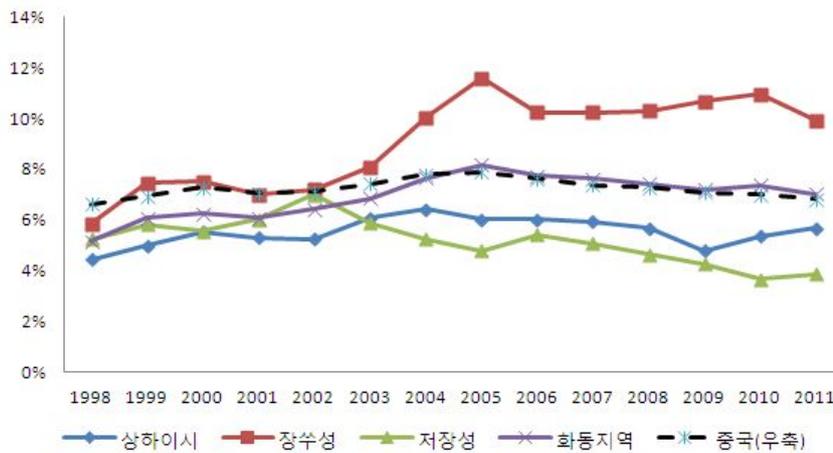
그림 3. 한국과 화동지역의 무역거래액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검색일: 2012. 8. 15).

- 연도별 무역총액에서 한국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과 화동지역이 유사하며, 화동지역 내에서는 장쑤성에서 한국과의 무역비중이 높은 편임(그림 4 참고).
 - 화동지역의 무역총액에서 한국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5.1%에서 2005년 8.2%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하여 7%대를 유지하고 있음. 같은 기간 중국의 무역총액에서 한국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6.6%로 화동지역보다 높았으나, 이후 꾸준히 7%를 유지하여 화동지역과 비슷함.
 - 화동지역의 성, 시 중 장쑤성의 무역총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1.6%에 달했으며, 2011년에는 9.9%를 차지함. 반면 저장성의 무역총액에서 한국의 비중은 2002년 7.0%에서 최근에는 오히려 감소하여 2011년 3.9%에 불과함.³⁾ 이는 저장성의 수입국 다각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⁴⁾

그림 4. 해당지역 무역총액에서 대한민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 한국의 대화동지역 주요 수출입품목은 대중 수출입 주요 품목과 유사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⁵⁾
 - 2011년 한국의 대중·대화동지역 주요 수출입품목을 살펴보면 전기전자제품(85)품이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였으며,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90), 보일러·기계류(84), 유기 화합물(29) 등의 품목도 수출과 수입 모두 상위 품목임.
 - 수출의 경우 화동지역의 무기 화합물(28)을 제외한 아홉 가지 품목이 대중 수출품목과 일치하며, 10

3) 저장성과 한국의 수출입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저장성의 전체 수출에서 대한민국 수출비중은 1998년 이후 1% 포인트 내에서 변동 및 감소하고 있으며(1998년 3.3%, 2011년 2.3%), 수입비중은 1998년 11%에서 2011년 7.2%로 감소함. 따라서 한국이 저장성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원인은 한국의 대저장성 수출비중 감소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4) 2002년 저장성의 10대 수입국에서의 수입이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6%였으나, 2011년에는 59.4%로 감소함.

5) HS코드 2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품목명 뒤 괄호 안에 HS코드를 표기함.

- 대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중국이 91.7%, 화동지역이 93.1%에 달해 유사함.
- 그러나 1위인 전기전자제품이 화동지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9%에 달해 동일 품목의 대중 수출비중 34.0%보다 9%포인트 이상 낮음.⁶⁾ 대신 유기 화합물의 수출비중이 15.0%에 달해 동일 품목의 대중 수출비중 7.9%보다 7.1%포인트 높음.⁷⁾
 - 수입의 경우, 상위 6대 품목은 중국과 화동지역이 동일하며, 10대 품목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중국이 71.0%, 화동지역이 73.0%에 달해 유사함.
 - 그러나 한국은 중국 전체와는 달리 플라스틱과 그 제품(39), 일반차량(87), 동제품(74) 등을 화동지역에서 수입하고 있음. 한국의 품목별 대중국 수입에서 △ 플라스틱과 그 제품 수입의 59.5% △ 일반차량 수입의 74% △ 동제품 수입의 74.7%가 화동지역에서 이루어질 만큼 화동지역이 해당 품목의 대한(對韓) 수출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는 이들 품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한국 기업이 화동지역에 활발히 진출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표 3 참고).
 - 또한 전기전자제품의 수입비중이 대중 수입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보일러·기계류의 수입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적임.

표 2. 2011년 한국의 대중국 및 대화동지방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순 위	한국의 대중국 수출 10대 품목				한국의 대화동지역 수출10대 품목			
	HS 코드	상품분류	수출액	비중	HS 코드	상품분류	수출액	비중
1	85	전기전자제품	54,965	34.0	85	전기전자제품	16,630	24.9
2	90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25,238	15.6	90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11,731	17.6
3	84	보일러·기계류	17,115	10.6	29	유기 화합물	9,975	15.0
4	29	유기 화합물	12,751	7.9	84	보일러·기계류	8,140	12.2
5	27	광물성 연료	12,673	7.8	27	광물성 연료	5,537	8.3
6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1,591	7.2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4,722	7.1
7	87	일반차량	4,987	3.1	72	철강	1,720	2.6
8	72	철강	4,736	2.9	87	일반차량	1,483	2.2
9	74	동제품	2,644	1.6	28	동제품	1,173	1.8
10	40	고무와 그 제품	1,565	1.0	74	무기 화합물	920	1.4
		대중국 수출총액	161,673	100.0		대화동지역 수출총액	66,657	100.0

- 6) 화동지역에서 생산법인을 운영 중인 한국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에 따르면 현지에 진출한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전기전자제품 업체가 많고, 중국업체의 기술수준도 높아져 현지 조달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함(2012년 5월 15일 현지 인터뷰).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의 3장 ‘한·화동지역 투자 현황’을 참고.
- 7) 화동지역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유기 화합물의 약 74%를 수입하는 지역으로 유기 화합물의 수요가 큼.

표 2. 계속

순위	한국의 대중국 수입 10대 품목				한국의 대화동지역 수입 10대 품목				
	HS 코드	상품분류	수입액	비중	HS 코드	상품분류	수입액	비중	
1	85	전기전자제품	23,475	28.3	85	전기전자제품	6,920	23.7	
2	84	보일러·기계류	8,782	10.6	84	보일러·기계류	4,425	15.2	
3	72	철강	8,437	10.2	72	철강	2,480	8.5	
4	90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4,231	5.1	90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2,245	7.7	
5	73	철강 제품	3,013	3.6	29	유기 화합물	1,317	4.5	
6	29	유기 화합물	2,807	3.4	73	철강 제품	1,038	3.6	
7	27	광물성 연료	2,392	2.9	39	일반차량	879	3.0	
8	89	선박 구조물	2,069	2.5	87	플라스틱과 그 제품	808	2.8	
9	62	의류	1,866	2.3	74	동제품	717	2.5	
10	28	무기 화합물	1,779	2.1	54	인조필라멘트섬유	446	1.5	
	대중국 수입총액			82,925	100.0	대화동지역 수입총액		29,159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검색일: 2012. 8. 3)

■ 무역액 증가와 더불어 한국과 화동지역 개별 성·시간 수출입품목이 다양해짐. 그러나 1998년 이래로 주요 수출입품목 변화는 크지 않은 편임.

- 1998년과 2011년의 수출입품목을 보면, 한국의 대상하이시 주요 수출품목은 1998년 철강(72), 유기 화합물(29), 인조필라멘트섬유(54) 위주에서 2011년에는 보일러·기계류(84), 전기전자제품(85),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27)로 변화함. 대상하이시 수입은 전기전자제품(85)과 보일러·기계류, 철강이 많음.
- 한국의 대장쑤성 최대 수출품목은 전기기기 및 TV·VTR(85),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90), 유기 화합물(29)임. 한국은 1998~2002년간 장쑤성에 유기 화합물을 가장 많이 수출하였으나, 2003년부터 전기전자제품을 더 많이 수출하고 있음. 반면 한국의 대장쑤성 최대 수입품목은 전기전자제품과 보일러·기계류, 철강임.
- 한국의 대저장성 주요 수출품목은 꾸준히 유기 화합물, 플라스틱과 그 제품(39)임. 반면 주요 수입품목은 2005년까지 어패류(3)가 1위였으나, 2006년부터는 전기전자제품과 보일러·기계류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1위를 차지함.
- 한국의 대화동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변화는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투자 추이와도 관련이 있음. 즉 2000년대 들어 삼성, LG, 기아, POSCO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화동지역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전자음향·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관련 품목의 무역이 주를 이루게 됨.

■ 한국의 대중·대화동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구조가 유사한 것은 장쑤성이 1998년 이래로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한국의 주요 무역 대상지역 4위권 안에 드는 등 화동지역이 한국의 핵심 수출입 대상지역이기 때문임.

- 한국의 대중 무역총액에서 화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9%에 달하며, 이 중 장쑤성이 화동 지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서 2004년부터 50%를 넘어섬.
- 일례로 2011년 한국의 대화동지역 무역액에서 성(省)별 비중은 △ 장쑤성 60% △ 저장성 15% △ 상하이 시 25%였음.
- 특히 장쑤성은 한국 제조업체의 생산기지가 많이 소재해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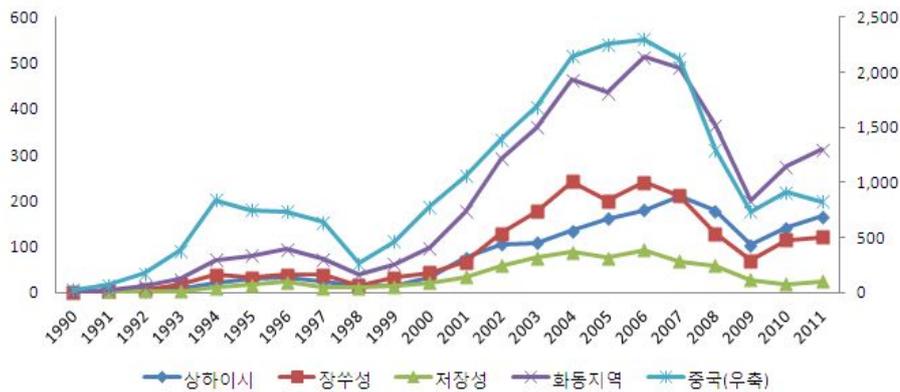
3. 한·화동지역 투자 현황

가. 한국의 대화동지역 투자 현황

- 한국의 대화동지역 투자는 1990년대에는 비교적 저조한 편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체 대중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음.
- 2012년 3월 말 기준 신규 법인 수(누계)는 4,505개로 1992년 13개보다 346.5배 증가했음. 이에 따라 대중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7.6%에서 2011년에는 37.6%로 급증함.

그림 5. 한국의 연도별 대화동지역 투자 현황: 신규 법인 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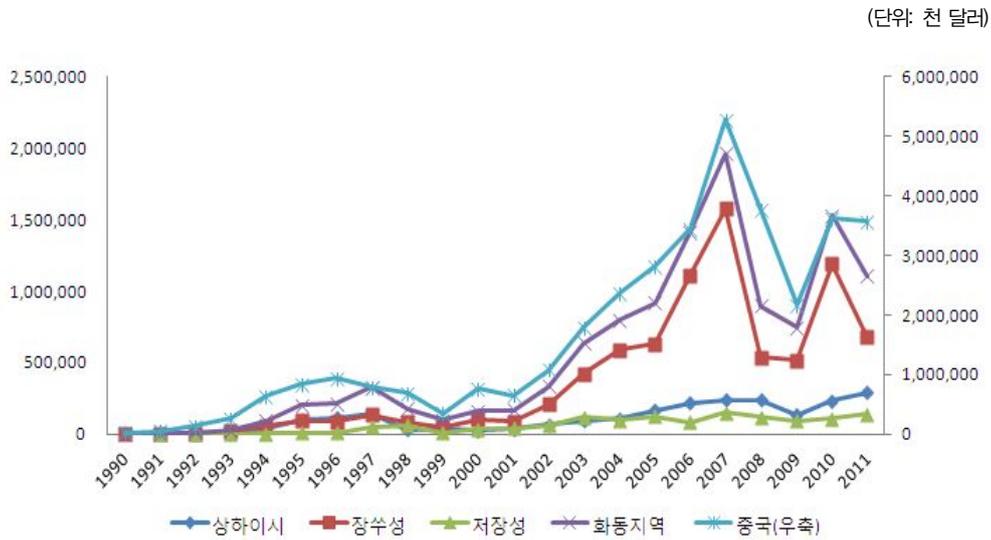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2. 8. 7)

- 화동지역 개별 성·시의 신규 법인 설립은 2000년대부터 활발해지면서 한국의 전체 대중 신규법인 설립 추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그림 5 참고).
- 세 지역 중 장쑤성이 가장 많은 신규 법인을 설립해 왔으나, 2008년부터는 상하이시가 장쑤성을 추월함.

- 이는 이 지역 신규 법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의 신규 법인 증가율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⁸⁾
- 투자금액(누계)은 120억 3,798만 달러로 1992년 1,163만 1천 달러보다 약 1,035배 증가했음. 대중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8.2%에서 2011년에는 30.9%로 증가함(그림 6 참고).
- 세 지역 중 장쑤성의 규모가 가장 크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투자가 급감했다가 2010년 증가했으나 2011년 다시 감소함.
- 상하이시와 저장성도 2009년 투자가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림 6. 한국의 연도별 대화동지역 투자 현황: 투자금액



- 한국의 대화동지역 주요 투자업종은 대중 투자업종과 유사하며, 2000년대 들어 제조업 위주 투자구조가 두드러짐.
- 투자금액(누계)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대화동지역 및 대중 투자 10대 업종 중 7개의 제조업과 1개의 서비스업 업종이 동일하며, 전자·음향·통신장비 제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모두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함(표 3 참고).
- 화동지역이 한국의 대중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7%인 데 반해, 대화동지역 투자가 해당 업종의 전체 대중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더 높음.

8) 2005년부터 상하이시 서비스업에 진출하는 신규 법인이 급증하면서 서비스업이 전체 상하이시 신규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72.3%에 달함. 반대로 장쑤성은 2011년 제조업 및 건축업 분야의 신규 법인 수가 전체의 73.6%를 차지하고 있음. 상하이시 서비스업 분야 법인 설립 증가율은 2007년 18.9%에 달해 장쑤성 제조업 및 건축업 분야 설립 증가율인 -9.1%를 추월했으며,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더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음.

- 일례로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은 전체 대중 투자의 58.8%,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은 전체의 53.3%, 전자·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은 전체의 47.4%가 화동지역에서 이루어짐.
- 화동지역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지 않았던 1990년대에는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전자·음향·통신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등과 함께 부동산업, 숙박업, 통신업 등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음.
- 그러나 2000년대(2001~2012. 3) 이후에는 전자·음향·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면서 같은 기간 전체 투자의 36%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도 1990년대 17위에 그쳤으나 2000년대 2위로 부상하는 등 제조업 위주의 투자구조가 뚜렷해짐.
- 삼성반도체, LG전자, 기아자동차, POSCO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화동지역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업종의 특징상 협력사의 동반진출도 활발해짐. 특히 2000년대 들면서 자동차, 금속, 장비 등 자본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남.

표 3. 한국의 대화동지역과 대중 투자 10대 업종 비교

(단위: 천 달러, %)

순위	화동지역			중국	
	업종	투자액	대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업종	투자액
1	전자·음향·통신장비 제조업	3,916,924	47.4	전자·음향·통신장비 제조업	8,263,592
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22,035	3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01,776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817,042	44.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98,623
4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674,449	53.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822,093
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34,520	58.8	1차 금속 제조업	1,634,964
6	1차 금속 제조업	610,630	37.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580,692
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37,479	26.9	금융업	1,368,183
8	소매업(자동차 제외)	512,917	43.7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265,074
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349,300	2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46,210
10	전기장비 제조업	331,055	46.7	소매업(자동차 제외)	1,173,816
전체		12,037,980			36,840,366

주: 1990~2012. 3월간 투자 누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2. 8. 7).

- 성·시별 주요 투자업종을 살펴보면, 장쑤성과 저장성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유사한 구조를 보이는 반면, 상하이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적임(표 4 참고).
- 지역별 10대 투자업종 중 3개 지역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업종은 없어 지역별 특성이 뚜렷한 편임.
- 상하이시는 전자·음향·통신장비, 의복, 식료품,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대 제조업과 도소매, 부동산, 금융 등 서비스업의 투자비중이 높음. 4대 제조업이 전체 투자액의 22.8%를 차지하고, 6대 서비스업이 전체 투자액의 41.8%를 차지함.

- 대장쑤성 주요 투자업종은 모두 제조업이며, 특히 전자·음향·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약 37억 5천만 달러에 달해 전체의 44.9%를 차지할 정도로 이 업종에 대한 투자가 집중됨.
- 저장성은 10대 투자업종 중 8개가 제조업이며, 이 중 화학, 섬유, 고무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상위 4위권 업종이 모두 장쑤성과 중복될 만큼 장쑤성과 투자구조가 유사함.

표 4. 한국의 대화동지역 10대 투자업종

(단위: 천 달러)

순위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업종	투자액	업종	투자액	업종	투자액
1	소매업(자동차 제외)	328,102	전자·음향·통신장비 제조업	3,746,79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350,966
2	도매 및 상품중개업	172,58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69,406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14,533
3	전문서비스업	154,366	1차 금속 제조업	565,67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74,264
4	전자·음향·통신장비 제조업	152,58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45,97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3,917
5	부동산업	150,397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444,64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83,838
6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5,17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389,42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6,989
7	식료품 제조업	124,96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86,102	소매업(자동차 제외)	54,314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6,198	전기장비 제조업	301,211	통신업	49,500
9	금융업	91,67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80,6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42,845
10	숙박업	90,62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38,248	1차 금속 제조업	32,997
전체		2,363,948		8,349,518		1,324,084

주: 1990~2012. 3월간 투자 누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2. 8. 7).

■ 지역별 투자업종 구성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상하이시가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장쑤성과 저장성은 제조업 위주의 기본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음.

- 한국의 상하이시에 대한 투자는 1990년대와 2000년대 모두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고르게 진행됨.
 - 10대 업종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와 2000년대 모두 약 56%로 비슷하나, 1990년대에는 부동산업과 숙박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반면, 2000년대에는 도·소매업과 금융, 전문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함.
 - 제조업의 경우 전체 기간에 걸쳐 전자·음향·통신장비 제조업과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식료품과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함.
- 장쑤성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전 시기에 걸쳐 제조업에 집중되었으며, 투자구조에 큰 차이가 없음.
 - 전자·음향·통신장비 제조업과 1차 금속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은 상위 5위권에 꾸준히 포함되어 있음.

- 1990년대에는 아직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1위인 1차 금속 제조업과 10위인 식료품 제조업 간 투자규모 차이가 7.4배였으나, 2000년대 들어 전자·음향·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면서 10위인 소매업(자동차 제외)과의 격차가 28.3배로 확대되었음.
- 저장성은 전 시기에 걸쳐 제조업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통신업⁹⁾을 제외한 9개 업종이 모두 제조업이었음. 2000년대 들어 소매업(자동차 제외)과 수상운송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으나, 화학, 섬유, 고무제품 제조업이 10대 업종 투자총액의 63.2%를 차지할 정도로 3대 제조업에 대한 편중현상이 뚜렷함.

나. 화동지역의 대한국 투자 현황

- 화동지역의 해외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장쑤성의 사례로 볼 때 전체 해외투자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임.
- 2004~10년간 세 지역의 해외투자액은 2006년 상하이시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저장성은 세 지역 중 해외투자가 가장 활발함(표 5 참고).
- 화동지역의 해외투자액 합계가 중국 전체 해외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6.5%에서 2010년 11.6%로 증가함.
- 그러나 2007년부터 국가별로 집계된 장쑤성의 해외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 2007년에는 기업 수가 전체의 0.8%, 투자액이 0.7%를 차지했고 △ 2010년에는 전체 기업의 1.7%와 전체 투자액의 0.1%를 차지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

표 5. 화동지역 연도별 해외투자 현황

(단위: 개, 만 달러)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기업 수	투자액	기업 수	투자액	기업 수	투자액
2004	91	32,824	n.a.	n.a.	378	15,175
2005	59	68,775	160	20,504	435	16,776
2006	75	52,977	n.a.	n.a.	425	30,044
2007	78	64,937	252(2)	46,784(310)	420	60,606
2008	104	70,810	232(7)	63,459(405)	427	86,088
2009	166	153,644	332(11)	106,347(1,581)	475	123,491
2010	179	242,029	408(7)	217,613(229)	630	336,008

주: 장쑤성의 () 안 수치는 해당 연도 장쑤성의 대한국 투자규모임.
 자료: 上海統計年鑑(각 연도); 江蘇統計年鑑(2009, 2011); 浙江統計年鑑(2011).

9) 1997~99년 중소기업이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저장성 통신업에 5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총 4,950만 달러의 투자를 실행한 바 있음.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통신업 분야에서 투자사례가 없음.

■ 화동지역의 한국 투자는 주로 영업, 지역정보 수집, A/S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며, 자회사 및 사무소 설립의 형태로 이루어짐.¹⁰⁾

- 장쑤성은 주로 섬유, 의류, 금속제품, 태양광 모듈 등의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고, 저장성은 섬유, 화학, 의류, 전기장비 산업에 집중됨.¹¹⁾
- 상하이시의 경우 초기에는 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투자가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서비스업으로 투자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임.

■ 대표적인 한국 투자 사례로는 상하이자동차, 산다, 그린랜드 그룹, 장쑤 화청 등이 있음.

- 상하이자동차(上海汽車集團股份有限公司, SAIC Motor)는 2004년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바 있음.
 - SAIC Motor는 중국 증시의 최대 규모 기업이자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로 2011년 완성차 판매량은 400만 대이며,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 151위를 차지함.¹²⁾
- 산다(盛大網絡, Shanda)는 기업인수 방식을 통해 한국에 투자하고 있음.
 - 산다는 중국 게임업계 2위, 게임 퍼블리싱 업계 1위 업체임.
 - 산다는 2004년 9,170만 달러로 액토즈소프트 지분의 29%를 인수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인수 지분을 50%로 확대하였음. 또한 2010년 9월에는 9,500만 달러를 들여 한국 아이덴티티게임즈를 인수하였음.
- 그린랜드 그룹(綠地集團, Greenland Group)은 2012년 7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헬스케어타운 투자 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현재 1단계 착공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임.¹³⁾
 - 그린랜드는 상하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중국 내 기업평가 87위, 2011년 세계 500대 기업에 진입한 부동산 전문 개발업체임.
 - 그린랜드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총 사업면적 153만 9천㎡ 가운데 약 77만 8천㎡를 매도한 후 1조 원을 투자해 의료 R&D 센터,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임.
- 또한 그린필드형 투자로는 장쑤 화청(江蘇華程工業製管股份有限公司) 사례가 대표적임.¹⁴⁾
 - 장쑤 화청은 HC T&P를 설립하고 2011년 3월 포항 외국인투자지역 및 부품소재전용공단에 9,974㎡ 면적의 탄소강 튜브 및 파이프 제조 제1공장을 준공했으며, 2010~14년 5년간 총 2,2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10) KOTRA(2011), 『중국 성시별 해외투자 연구』.

11) KOTRA에서는 저장성을 투자 프로젝트 면에서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투자 사례는 알려지지 않음.

12) SAIC Motor 홈페이지(검색일: 2012. 8. 8).

13) 그린랜드그룹 홈페이지(검색일: 2012. 8. 7).

14) 장쑤 화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수연(2010), 「장쑤(江蘇)성 기업의 국제화 현황과 시사점」, 중국성별동향브리핑 제10-18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4. 한·화동지역 정부간 교류 현황

- 한국은 KOTRA 상하이무역관과 총영사관 개관을 시작으로 현재 1개의 재외공관과 8개의 지방자치단체 대표처를 화동지역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대부분 상하이시에 소재함(표 6 참고).
- 재외공관으로는 1993년 주상하이 총영사관을 개관했고, 부산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이 상하이시에 대표처를 설치, 운영 중임.
- 또한 KOTRA가 상하이(1992), 난징(2011), 항저우(2011)에 무역관(KBC)을 개소했고, 한국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상하이시에 지사를 설치해 운영 중임.

표 6. 화동지역 소재 주요 기관 현황

진출형태	구분
재외공관	주상하이 총영사관
지방자치단체 상하이 대표처	부산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군산시 상해통상대표처, 목포시 상해경제무역연락처
유관기관	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관광공사

자료: 주상하이총영사관 홈페이지(<http://shanghai.mofat.go.kr/jungmu/jungmu3#>)(검색일: 2012. 8. 14).

- 한국과 화동지역 지자체 간의 교류를 보면, 부산광역시는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하고, 호남권은 장쑤성과 저장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표 7 참고).
- 상하이시는 1993년 부산광역시와 자매결연을 하였으며, 6개의 구(區) 중 루완(盧灣), 푸뉘(普陀), 홍커우(虹口)구가 각각 부산광역시의 영도구, 금정구, 동래구와 자매결연을 하였음.
- 장쑤성은 1994년 전라북도와 자매결연을 하고, 1992년 전남 목포시와 자매결연을 한 려윈강(連雲港)시를 비롯한 13개 지급시가 모두 한국의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하였음.
- 저장성은 1998년 전라남도와 자매결연을 했으며, 11개 지급시 중 5개 시만 한국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하고, 대부분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함.
- 중국 지방정부 측은 자매결연 복수체결을 희망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자매결연은 한 지역과만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호교류 협약이 많은 편임.
- 지자체 간의 교류는 과거 상호방문과 인적교류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교류영역을 넓혀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를 모색하는 활동이 늘어나는 추세임.
- 부산시는 상하이시에 부산시 무역사무소를 1997년 개소해 운영 중이며, 2012년 4월 허남식 부산시장 이 상하이시를 방문해 상하이 한정(韓正) 시장과 향후 5년간 ‘교류협력증진 양해각서’를 체결함.¹⁵⁾

표 7. 한·화동지역 지자체 간 자매결연 현황

중국		한국	체결일자	중국		한국	체결일자
상하이시	상하이시	부산시	1993.8	장쑤성	장쑤성	전라북도	1994.10
	자딩(嘉定)구	서울 강북구	1997.12		난징(南京)시	대전시	1994.11
	루완(盧灣)구	부산 영도구	1996.5		쑤저우(蘇州)시	전북 전주시	1996.3
	바오산(寶山)구	서울 금천구	1996.12		옌청(鹽城)시	전북 남원시	1996.6
	푸뉘(普陀)구	부산 금정구	2005.6		난통(南通)시	전북 김제시	1996.8
	칭푸(靑浦)구	충남 보령시	1999.4		전장(鎮江)시	전북 익산시	1998.10
	홍커우(虹口)구	부산 동래구	1997.5		창저우(常州)시	경기 남양주시	1999.9
저장성	저장성	전라남도	1998.5		화이안(淮安)시	전북 완주군	1999.4
	자싱(嘉興)시	강원 강릉시	1999.5		타이저우(泰州)시	충북 음성군	2000.9
	항저우(杭州)시	전남 여수시	1994.11		쉬저우(徐州)시	전북 정읍시	2000.9
	타이저우(台州)시	전남 무안군	2000.9		양저우(揚州)시	경기 용인시	2000.5
	사오싱(紹興)시	서울 용산구	2004.10		렌윈강(連雲港)시	전남 목포시	1992.11
	후저우(湖州)시	전남 영암군	2003.10		우시(無錫)시	경남 김해시	2005.12
					쑤첸(宿遷)시	경북 청송군	2005.11

주: 한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중국 화동지역의 지(地)급시 이상 지방정부 간 자매결연 현황만 정리하고, 우호도시는 생략함.
 자료: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2011), 『한중 지방정부 교류 백서』.

- 전라북도는 2009년부터 장쑤성과 공무원 상호파견을 시행하고 있으며,¹⁶⁾ 정기적으로 문화, 스포츠, 청소년 교류를 진행해 왔음. 또한 2011년부터는 새만금과 장쑤성 연해지역의 상호 투자유치와 협력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¹⁷⁾
- 전라남도는 1998년부터 저장성과 공무원 교류를 실시해 전남에서 저장성으로 11명, 저장성에서 전남으로 12명 등 총 23명이 1년씩 상호 파견근무를 해왔음.¹⁸⁾

15) 부산시와 상하이시 간에는 공무원 파견 프로그램이 없으며, 정기적인 문화예술 교류는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담당하고 있음(부산광역시청 행정자치국 국제교류과 관계자 인터뷰(2012. 8. 14)).

16) 장쑤성 측에서는 내부사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전라북도에 파견한 공무원이 없으며, 전라북도청에서는 2012년 8월 기준으로 1명의 공무원이 장기 파견된 상황임(전라북도청 대외소통국 다문화교류과 관계자 인터뷰(2012. 8. 14)).

17)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2011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만금-강소연해구 한·중 공동특구’ 건설계획을 밝힘.

18) 『세계일보』(2011. 6. 13), 「전남도청 경제통상과 ‘이색 풍경’」.

5. 평가와 전망

■ 한국과 화동지역 간의 무역 · 투자 교류는 2000년대 들어서 급증하였으며, 현재 화동지역은 한국의 주요 무역 · 투자 대상지역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음.

- 한국의 대중 무역에서 화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에 18.4%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과 2010년에 40%를 넘었으며, 2011년에도 39.2%를 차지해 중국의 권역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또한 한국의 대중 투자는 1992년 한·중 수교 초기에는 동북지역⁹⁾과 환발해만 지역²⁰⁾에 집중되었으나, 화동지역의 빠른 경제발전과 우수한 산업기반에 힘입어 2000년대 들어서 화동지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 투자에서 화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8.2%에서 2011년 30.9%로 증가했음.

■ 화동지역은 중국 내외의 환경악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상당 기간 중국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부터 인력난·전력난이 심화되고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등 화동지역의 전반적인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따라서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친환경 산업인 신산업이나 서비스업 중심의 구조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 속도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 상하이시 4대 국제 허브 건설계획 △ 장쑤성 연해지역 개발계획 △ 저장성 3대 발전계획 등이 국가급 지역발전계획으로 지정돼 추진되고 있어 향후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임.
 - 상하이시가 2020년을 목표로 하는 4대 국제 허브는 경제, 금융, 항공·해운, 무역 허브임.
 - 장쑤성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된 연해지역의 난통(南通), 염청(鹽城), 련윈강시를 적극 발전시킬 계획임.
 - 저장성의 3대 발전계획은 해양경제발전시범구, 이우(義烏)국제무역종합개혁시범사업, 원저우(溫州)금융개혁시범구임.
- 또한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창장삼각주도시군(메갈로폴리스) 형성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도시가 발전하여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임.
 - 중국정부는 2010년 ‘창장삼각주지역계획(長江三角洲地區區域規劃)’을 발표하여 2015년까지 상하이시를 포함한 16개 도시를 핵심으로 한 메갈로폴리스를 형성할 계획임을 밝힘.
 - 일례로 *Foreign Policy*가 선정한 ‘2025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75개 도시’²¹⁾ 중 상하이시가 1위를

19) 동북지역은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으로 구성됨.

20) 여기에서 환발해만 지역은 베이징시, 톈진시, 산둥성, 허베이성을 지칭함.

21) *Foreign Policy*(2012), “The Cities Issue: Cities of the Future, Made in China”(September/October).

차지했고, △ 장쑤성의 난징(南京), 쑤저우(蘇州), 우시(無錫), 창저우(常州), 쉬저우(徐州)시, △ 저장성의 항저우(杭州), Ningbo(寧波)시 등 총 8개 도시가 순위에 올라 중국 권역 중 화동지역의 도시가 가장 많이 선정됨.

- 따라서 화동지역의 환경 변화에 맞춰 무역·투자의 방향을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음.

■ 무역의 경우 화동지역은 내수시장을 겨냥한 교역 대상 및 상품 다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화동지역 3개 성·시는 물동량이 중국 및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항구를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 정부 및 항구에 소재한 지역 해관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통관 등 수출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또한 현지에 소재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에서 벗어나 중국 기업 및 소비자를 겨냥한 상품 개발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화동지역은 소득수준이 높고 소비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투자의 경우 우리 기업의 화동지역 서비스업 분야 진출이 확대되고, 지자체별로 화동지역 소재 중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 상하이시의 4대 국제허브 계획에 맞춰 금융·물류·무역 분야의 개방이 활발해질 전망이므로, 관련 서비스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음.
- 반면 현재 장쑤성, 저장성에 대한 투자는 제조업에 편중된 경향이 있으며, 한국 입장에서는 미개척지인 이들 지역의 서비스업 진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 특히 저장성의 경우 가장 많은 업종의 투자가 이루어진 2008년에도 서비스업 투자 업종은 9개에 불과해 같은 해 상하이시의 25개와 장쑤성의 21개에 크게 못 미침.
- 그러나 저장성은 높은 소득수준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향후 서비스 시장이 크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시장 및 투자환경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화동지역 소재 중국기업은 풍부한 민간자본을 바탕으로 향후 해외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므로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실제로 저장성 윈저우시는 해외투자 대상지역을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광주광역시와 접촉해 2012년 3월 우호도시협약을 체결하고, 7,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은 바 있음.²²⁾ KIEP

22) 광주광역시청 투자유치지원관실 관계자 인터뷰(2012. 1. 4); 『광주일보』(2012. 3. 21), 「광주시, 中 윈저우서 7,500만 달러 투자유치」.